

Human Completion Education and Education Policies

Ahn Byung-young

Abstract

This paper basically deals with two basic issues. In the first part, the author reviews some important theoretical perspectives on human completion education. In the second part, he constructs the basic directions and framework of the Korean education policies aiming at human completion education based on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n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from the global society. Especially the author strongly recommends human completion educ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with an emphasis on personality education and creativity development.

전인교육과 교육정책

안병영*

요약

저자는 이 글에서 전인교육의 기본적 관점을 정리하고, 세계 변화와 한국 교육의 현주소에 준거하여, 전인교육 지향의 한국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구상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유·초등 교육과정에서 전인교육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과 창의성 계발에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I. 전인교육의 인간학

1. 기본적 관점

전인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지(知), 정(情), 의(意)가 조화롭게 도야된 인간 내지는 지(智), 덕(德), 체(體)가 조화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전인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에 고르게 관심을 피력하며, 인간성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면적인 교육을 지향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인교육은 인간의 성장 발달이 통합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인교육

*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은 인간에 내재하는 주체적, 창조적 자유의지와 능력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

전인교육은 또한 인간, 세계, 자연을 총체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런 맥락에서 인간이 이웃과 큰 사회, 그리고 자연과의 건강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전인교육은 그 실천과정에서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를 풍미하는 지식 위주의 교육, 경쟁 교육, 주입식 교육은 잘못된 것이며, 인간의 원만한 인격 형성을 저해한다고 본다. 이는 또한 자칫 교육과정에서의 인간소외, 도덕불감증,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많은 이들이 ‘인간 중심 교육’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전인교육의 맥락에서 오늘날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현대의 몇몇 교육자 및 교육 정책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입장은 현대 학교교육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경청할 만하다.

나스르(P. T. Nasr)는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자아상(self-image)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긍정적이며, 건강하고, 높은,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자아상이 성공의 주요한 열쇠이며, 이를 심어주기 위해 교사의 역할은 1) 발견자(discoverer), 2) 촉진자(facilitator), 3) 방향 제시자(director), 4) 상담자(counselor)가 되는 것이다.

나딩스(N. Nadings)는 학교교육은 배려(care)의 관점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주요 목적은 능력 있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자

신, 이웃, 인류, 식물, 동물, 환경, 인간이 만든 세상과 사상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일반교육(전인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딩스는 이것이 지적 발달이나 학문적 성취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사토 마나부는 학생들 간에 ‘케어(care, 배움과 돌봄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사들 간에 실천을 담은 ‘담론 커뮤니티(discourse community)’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한편 조한혜정은 ‘돌봄과 배움이 가능한 작은 학교 만들기’를 역설한다. 마나부나 조한혜정은 학자이며, 대안학교 운동가들이다.

아들러(A. Adler)는 인간은 유전과 환경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삶을 독특하게 이루어 나가는 ‘창조적 자아(creative self)’이다.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이상적인 에토스는 ‘공동체감(Gemeinschaftsgefühl)’인데, 이는 타고난 것이지만, 잠재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에서 계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랭클(V. Frankl)은 삶을 위한 주요 동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건강한 핵심자원(resources of their healthy core)’을 의식하도록 돕고, 아울러 그들로 하여금 그 자원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교육부장관으로 1995~1997년 ‘5.31’ 교육개혁을 추진했던 안병영은, ‘교육개혁의 목적은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특히 한국 교육과정 속에 담겨 있는 교육소외를 크게 우려하여 교육복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소외는 인간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킨다. 교육소외에서 비롯되는 교육손실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체계의 효율성과 정당성의 손실을 입힌다’. 아울러 그는 교육복지는 ‘소극적으로 교육소외의 극복이고, 적극적으로 교육본질의 회복이며, 교육은 모든 학습자의 발전 잠

재력을 고르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신장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 전인교육 지향의 인간학 - 아들러와 프랭클

현대의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내지 정신치료가들 중에서 가장 전인교육적 관점을 바르게, 그리고 일관되게 표명했던 학자로 아들러와 프랭클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인간관, 논리체계 및 방법론을 탐구하는 일은 전인교육의 바른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가.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

아들러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 그리고 정신치료가로서,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의 창시자이다.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와 칼 융(Carl Gustav Jung, 1875~1961)과 더불어 현대 심리학의 거장 중의 하나다. 어린 시절 생사를 넘나드는 병고로 크게 고생을 했던 자신의 경험, 그리고 제 1차 세계대전에서의 참전이 훗날 그의 이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한 때 프로이드의 핵심 서클에 속했으나, 1911년 이후 그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자신의 이론 체계를 세운다.

프로이드가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쾌락에의 의지(will to pleasure, Willen zur Lust) 내지 성적 충동을 강조하지만, 아들러는 인간 마음속에 존재하는 공격적 충동으로 권력에의 의지(will to power, Willen zur Macht)에 큰 관심을 쏟는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inferiority)'을 갖고 있고, 그 극복을 위해 '우월성(superiority)' 내지 '자기완전(self-perfection)'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때 그 물꼬를 잘 터주는 경우, 각 개

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더 발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우월에의 추구 때문에 인간은 마이너스 상황을 플러스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다시 말해 완전을 향해 매진하는 기본적 힘이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양식이 형성되어 가는데, 만약 보상할 수 없는 열등감이나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이 있으면 인격의 왜곡이 생긴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교육자, 사회사업가, 종교가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고, 신프로이드파와 카운슬링 이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개인들은 아동기에 자신에 대해 ‘픽션(fiction)’이나 스토리를 만드는데, 그것이 전 생애를 통해 그들의 인지 및 선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선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좌우하게 된다고 보았다. 아동의 퍼스널리티 발달에서 신체적 결함(organ deficiency), 출생순서(order of birth), 응석받이(pampering), 무시(neglect)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그 때문에 역기능적이고 부정확한 개인적 정체성 픽션이 마련된다고 보았다. 그는 신체적 열등감을 창조적인 힘으로 승화시킨 예로 헬렌켈러, 웅변가 데모스테네스, 올림픽 트랙 삼관왕 윌마 루돌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사도 바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열등감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개인적 고통이나 사회적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와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비엔나에 아동들의 정신적 지도를 위한 병원(child guidance clinic)을 세웠고, 이를 원형으로 하는 많은 아동병원들이 해외에 세워졌다.

필자는 전인교육의 맥락에서 아들러의 다음과 같은 점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1) 그는 인간을 전인(全人, a whole person)으로 보았다. 말하자면 인간을 총체론(Holism)적 입장에서 접근한다. 따라서 인간을 에고(Ego)와 이드(Id),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와 같은 생경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누고, 환자의 모든 문제를 성적(性的)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프로이드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에 있어 개인은 연구 및 서술의 최소 단위이며,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이 그의 가족, 직장동료 및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공동체(Gemeinschaftsgefuehl)을 중시하며, 개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선을 위해 함께 일하는 능력이 건전한 정신건강의 지표라고 보았다.

2) 아들러는 정신적 과정과 신체적 과정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정신과 육체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인간을 통찰하였다. 그가 자신의 심리학을 개인심리학으로 표현하는 이유도, 개인(individual)이란 용어는 라틴어 'indivisible'에서 온 말로 분리될 수 없다는 뜻으로 '단일화'되고 자아가 일관된 실체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어떠한 삶의 표현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정신과 육체를 관련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상인, 2001: 27).

3) 인간은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유전과 환경은 개인이 그의 창의력의 관점에서 응답하는 틀과 영향력을 제공할 뿐이다. 그는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며,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도 그에 어떻게 반응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창조적 자아의 역동적인 힘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 정신의 생명은 ‘있는 것(being)’이 아니라 ‘형성되어 가는 것(becoming)’이다.

4) 인간은 개인의 독특한 성격 및 생활양식의 형성,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아의 창조적 힘(creative power of the self)’을 지니고 있다.

5) 그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Socratic dialogue)을 예로 들면서 환자와의 비권위주의적 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감정이입(empathy)의 중요성에 언급하며, 심리치료에서 환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들을 치료과정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 보았다.

6) 그의 이론과 방법론은 개인의 일상적이고, 실제적 삶에 뿌리를 하고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드의 성적 집착이나 융의 신비주의와 차이가 컸고, 그 때문에 심리학의 주류 내에서 폭넓게 수용이 되었다.

7) 보트모아(P. Bottmore)의 말대로, 그는 인간을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며, 자유와 책임을 지는 존재로 보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실존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특히 공동체감정(Gemeinschaftsgefuehl)을 강조했는데, 이는 ‘친밀하고 상호배려적이며, 활발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열성적인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고 보았다. 그는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도와 훈련을 통한 의식적인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의 이론과 방법론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메이(Rollo May), 알포트(Gordon Allport), 마스로우(A. H. Maslow), 엘리스(A. Ellis), 프랭클(V. Frankl) 등이 아들러의 성격이론 중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면에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심리학자이며 정신치료자들이다.

나. 프랭클(Vitor E. Frankl, 1905~1997)

프랭클은 프로이트와 아들러를 낳은 현대정신의학의 발생지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대계 관료의 아들로 태어났다. 빈 의대를 나와 한 병원의 신경정신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1942~1945년 아우슈비츠를 포함하여 네 곳의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를 전전하며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의 아내, 부모 및 다른 가족들은 그곳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다.

전쟁이 끝난 후, 프랭클은 수용소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Logotherapy)를 창안하였다. 'Logos'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이다. 그의 주저 '인간의 의미추구(Man's Search for Meaning)'는 1997년 그가 죽기까지 24개 언어로 73판을 거듭했고, 전 세계의 고교 및 대학의 심리학, 철학 및 신학의 표준 텍스트로 쓰였다. 인간의 '의미추구 의지(will to meaning, Willen zum Sinn)'에 바탕을 둔 그의 로고테라피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이어 제3의 빈 학파라고 불리운다.

로고테라피의 핵심은 인간의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큰 힘은 의미의 추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로고테라피스트의 일은 환자에게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의 심리치료의 '실존적' 측면은, 인간은 그의 생물적, 상황적 조

건이 어떻든 언제나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데 있다. 인간은 고통(pain), 죄책(guilt), 그리고 죽음(death)이라는 ‘비극적인 3중 세트(tragic triad)’에 시달리지만, 비극에 직면하여 최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놀라운 잠재력이 있음을 일깨우며, ‘비극적 낙관주의(Tragic Optimism)’를 설파했다. 즉 그는 고통을 인간성취와 성과로 바꾸고, 죄책감을 자신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기회로, 그리고 인간의 텅없음을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끄는 유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삶은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에게 의미를 준다”고 말한다.

로고테라피의 기본적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한 핵심자원(resources of their healthy core)’을 의식하도록 하고, 아울러 그들로 하여금 그 자원을 바르게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심리학자 알포트(Gordon W. Allport)는 프랭클의 <죽음의 소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이시형 역, 2005, 청아출판사)>의 추천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강제수용소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하도록 만든다. 평범한 삶에서는 당연했던 모든 인간적인 목표들이 여기서는 철저히 박탈당한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자유’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뿐이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적어도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외형적인 운명을 초월한 인간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었다.

그의 심리학의 기본개념은 1) 삶은 어떤 경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 2) 삶을 위한 주된 동기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들의 의지이며 3)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는 의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도 좌절할 수 있다. 이것을 로고테라피에서는 '실존적 좌절'이라고 한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심인성 노이로제(psychogenic neurosis)라고 하나 로고테라피에서는 이를 누제닉 노이로제(noogenic neurosis)라고 부른다. 즉 병의 원인을 심리적인 것에 두지 않고 인간 실존의 정신론적 차원에 두고 있다. 로고테라피는 환자의 실존 안에 숨겨져 있는 '로고스'를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분석과정에서 정신분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로고테라피는 이 과정에서 인간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적 요소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의 실존적 현실, 즉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의 의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실존의 잠재적 의미까지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로고테라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인 것이다.

실존적 공허(existentielles Vakuum)는 현대에 널리 퍼져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 인간에게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muss) 말해주는 본능도 없고, 그가 해야 할(soll) 전통도 없다. 그리고 가끔 자신조차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will)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동조주의(Konformismus)나 아니면 남이 시키는 대로 추종

하는 전체주의(Totalitarismus) 사람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실존적 공허의 결과들인 동조주의나 전체주의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누제닉 노이로제가 문제시 되는데 이는 특히 정신적 빈곤(geistige Not)에서 비롯되며, 심연에 이르는 의미상실감(Sinnlosigkeitsgefuehl)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로고테라피에 따르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세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즉 1)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2)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3)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다. 위의 두 번째 방법은 선이나 아름다움, 진리를 체험하는 것,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거나 다른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체험하는 것, 즉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는 사랑은 소위 승화라는 의미에서 성적 충동이나 본능의 단순한 부수 현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사랑은 근원적인 하나의 현상이며, 섹스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듯 사람은 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방법 중 세 번째 시련의 의미도 중요하다. 즉 인간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했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오히려 그러한 시련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잠재력이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만들고 곤경을 인간적 성취로 바꾸어 놓는다.

프랭클은 의미상실감에 빠져 있는 많은 현대인을 위해 교육은 큰 몫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중개해서만 안 되고, 그와 함께 개별상황에 내재하는 요구를 바르게 식별하고 그에 감수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양심(Gewissen)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깨어있는 양심(ein waches Gewissen)'을 강조하며, 그래야

만 동조주의나 전체주의에의 면역과 저항이 가능하다고 설파한다. 특히 이를 위해 ‘책임성 교육(Erziehung zur Verantwortung)’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여기서 책임성은 선택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풍요사회의 매스 미디어를 통한 자극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본질적이며,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또 무엇이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산다는 것이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곤경과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확신을 로고테라피로 발전시켰다. 그는 프로이트 이론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업적 위에 자신의 이론을 쌓아 올렸는데, ‘정신치료의 역사상 가장 독단적인 아닌 학파’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들러와 프랭클은, 인간을 전인(全人)으로 이해하고, 개인을 저마다 독특한, 그리고 실존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 미래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 인간의 자유의지와 창조적 자아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되는 측면이 강하다. 아들러는 인간에 내재하는 열등감을 바르게 수로화(水路化)하여 자아완성으로 이르도록 도와야 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공동체감의 제고를 역설하였다. 한편 프랭클은 현대인에게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일깨우며,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양심의 중요성과 책임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I. 세계 변화와 미래 교육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 교육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계 변화와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어떠한가. 우리가 앞으로 전인교육을 펼쳐야 할 세상과 그 미래의 흐름을 큰 그림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화

이미 1980년대 이후 시작한 ‘지구촌화’와 시장주의의 확산과 글로벌 경쟁의 참여화는 아직도 세계의 큰 추세다. 이에 따라 경쟁교육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핵심적 생존전략이자 미래 투자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눈으로 보면, ‘하나뿐인 지구’의 지속과 유지, 발전을 위해 경쟁 못지않게 자원, 식량, 환경, 평화 등 인간실존의 여러 영역에서 ‘공존’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관점(global perspective)’을 ‘경쟁’과 ‘협력’이라는 맥락에서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지식, 정보화

산업사회 급속히 퇴조, 지식사회·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탈공업화, 경제의 서비스화, 소프트화가 후기 산업사회의 주요한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점차 지식근로자 중심의 노동·고용 구조가 형성되며, 고숙련·고지식에 대한 수요가 편향적으로 확대되고 있

다. 따라서 창의력과 전문능력 개발이 필수적이며, 다기능(multi-skilling)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장기실업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속적 고용능력(sustainable employability)'을 유지,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 능력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과 학습'의 병행, 평생학습 및 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러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며, '개별화 방식(tailor-made individualized pathways)'의 학습이 중시된다. 이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

3. 저출산 고령화 사회화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후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며, 대체로 2020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학령인구 급감, 생산중심인력 중년층으로 이동, 다문화 사회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확보, 개발, 활용이 필수적이며, 특히 노인, 여성, 장애인, 이민자 등 그동안 비 핵심 인력으로 간주되던 인적자원의 일탈, 유실을 최대한으로 막고, 이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활용도 높은 다수와 혁신적·창의적 소수가 모두 필요하다.

4. 우리 교육의 빛과 그림자

가. 문제점·장애요인

과도한 입시경쟁과 과열된 교육열이 결합하여 사교육(비)의 비중이

계속 높아져, 가계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이는 조기유학, '기러기 아빠',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학교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대학 서열화, 학벌 위주 사회, 학력의 세습화, 가난의 대물림 등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체제가 부실하여, 이는 인적자원의 활용 및 효용 수위를 크게 낮춘다.

대학교육이 그간 양적 성장에 주력하면서, 적절한 질 관리와 지속적 투자에 소홀했다. 그 결과 산업계의 수요에 제대로 수용 못하며,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낮다. 그런가 하면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체제가 부실하여 인적자원의 최적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나. 강점·잠재력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지난 30년간 이 나라가 이룩한 경이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원동력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전통과 높은 교육열은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학력비교(PISA와 TIMSS)에 따르면, 한국의 중·고교생들은 발군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의 교육정보화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다. 비교 논의·개혁 방향

한국 교육의 실상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교육 중시 문화는 사회발전의 동력이며, 비교적 견고한 기본적 교육 인프라는 한국 교육의 강점이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역점이 지나치게 '경쟁'에 치우쳐 있으며 '협

력' 및 '공존능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다. 따라서 전인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빛나간 교육열, 왜곡된 교육관, 학력 위주의 교육, 학벌주의, 이념갈등 등이 지양되어야 하며, 직업교육의 부실과 평생교육의 미흡 또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하여도 전인교육적 인간관, 교육관, 사회관의 제고가 필수적이다.

Ⅲ. 전인교육 지향의 교육정책

여기서는 거시적 차원의 교육정책 접근 중 가장 전인교육 지향과 가까운 '사회투자국가'적 접근을 소개하고, 이어 전인교육 지향을 위하여 한국의 교육정책이 어떠한 기본 틀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투자국가'적 접근(social investment state approach)

1997년 집권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가 '제3의 길'을 천명한 후, 2000년 이후 유럽 각국 및 유럽연합 차원으로 확산되는 사회, 교육정책의 새로운 흐름으로 '사회투자국가'적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이 표방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경제적 효율 및 생산성과 전후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평등 및 사회정의를 결합하는 접근으로, 기존의 급여와 권리에 초점을 둔 재분배적이고, 소비적인 사회복지를 넘어 인적자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인간의 참여능력의 향상과 사회적 결속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전이를 뜻한다.

사회투자론의 핵심적 입장은 경제와 사회의 통합적 인식 내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 접근은 결과의 평등 소득의 재분배로부터 기회의 평등 내지 '생애 기회의 평등'으로의 전이를 추구하며, 따라서 '기회' 및 '능력'의 분배 및 재분배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강조하는 '기회'는 불확실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회의 평등(가능성의 재분배)'이며, '능력'은 저숙련이나 저지식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전적 복지국가가 추구했던 완전고용보다 '지속가능한 고용가능성'을 우선한다.

사회투자접근의 핵심인 인적자원 개발의 기본적인 지향은 전통적 학령기 교육의 틀을 넘어 유아로부터 고령에 이르는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요 정책으로 영유아의 공공보육,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및 질적 제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직업훈련 기회의 강화 및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은 사적 예방적 투자(preventive investment)를 강조하는데, 그 중요한 고리는 '미래의 시민'인 아동들에 대한 투자이다. 이는 교육적 투자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일에 대한 호의적 태도 등 인간의 기초능력이 형성되는 아동기 인지능력 발달기에 이들에 대한 보살핌과 교육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 예방적, 적극적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가정, 특히 빈곤가정, 홀부모가정 및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를 둔 아이들에 대한 보육 및 교육적 배려가 증시된다.

그 대표적 프로그램이 영국의 'Sure Start'인데, 지역별로 아동센터를 마련하고 지역도서관, 병원, 학교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육과 건강관

리, 그리고 독서습관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방과후학교 및 교육안전망 사업 등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접근은 '고용가능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교육체제 및 교육과정의 '투자적' 효율성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며, 적정수준의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보인다.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급자(학교, 교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일이 그 예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은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정의 실천의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보다 투자의 생산성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원천적 복지 및 정의실현 의지 때문에 보편적 교육투자와 더불어 사회적, 교육적 취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큰 힘을 쏟는다. 따라서 이들 소외계층 및 집단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 복지서비스를 위한 정책과제들이 주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우리의 경우, 두 번에 걸쳐(1996.12 및 2004.9) 작성된 교육복지 종합대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관점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인간의 물적 요인(전문적, 기술적 능력)에 대한 경제적 투자로 협의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개념을 단순한 인적자본을 넘어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의미를 포함하는 통합적 역량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교육복지정책도 그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인적자원정책 및 노동시장정책과 연관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2. 전인교육 지향을 위한 한국 교육정책의 기본 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교육개혁의 역사를 개관하면, 교육개혁의 기본철학은 대체로 세 가지 물줄기를 그 원천으로 하고 있다. 즉 교육의 본령(本領), 그 본연의 목적을 강조하는 본질주의, 시장원리와 경쟁력을 앞세우는 경제주의, 그리고 사회적 형평과 통합을 강조하는 평등주의가 그것인데, 이들은 서로 각축하며 3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본질주의는 도야(陶冶)를 교육목표로 삼고 지덕체(智德體)의 고른 발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 간의 바른 상호작용과 인간의 가치 있는 변화에 주안점이 주어진다. 한마디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노력으로 집약된다. 교육의 본질을 강조하는 이 입장은 지적 능력이나 학력의 신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성의 함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킨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인교육의 입장에 가장 가깝다.

이에 반해 경제주의는 시장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며, 능력신장과 경쟁력강화라는 집약된 목표를 지향한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가능한 한 조기 선발하여 세계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한다. 대체로 이념적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의 보수적 지도층, 특히 경제엘리트들이 이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런가 하면, 평등주의는 대중적 관점에서 교육기회의 평등과 뒤진 자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강조하며, 공동체주의와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진보적 사회세력과 민중들, 그리고 과도한 시장주의의 발호를 우려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는다.

따지고 보면, 본질주의, 경제주의, 그리고 평등주의는 모두 중요한 사회가치들이다. 또 저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중 어

느 것 하나를 온전히 취하고 다른 것을 통째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개혁이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다면, 모든 교육개혁은 이들 세 가지 중 어느 것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간의 조합과 조화의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을 교육단계마다 이들 세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의 문제로 집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질주의, 경제주의, 그리고 평등주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것은 교육 내지 교육이라는 영역의 특색이다. 교육적인 상호작용과 변화는 대체로 장기적이고, 질적이고, 내면적이며 총체적 변화를 특색으로 하고 있다. 교육투자는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사람의 총체적 변화, 특히 그 정신적 영역의 변화를 겨냥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극단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개혁은 어느 정권의 정치적 수명을 뛰어 넘어야 하며, 그 때문에 교육개혁에 정치논리의 개입은 저지해야 한다.

아울러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교육개혁을 이제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 사회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이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인구구성도 고령화되며 중심인력이 중년층으로 이동해서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중위연령 56.25)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교육개혁을 인적자원 수급측면과 긴밀하게 연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보육, 유아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정을 통해 양질의 근로능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시 세 가치의 배분문제로 돌아가자. 그런데 실제로 이들 세 가치 내지 접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은 적어도 수사(修辭)적 차원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본질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질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쟁론이 없다. 적어도 외향적으로는 마치 모두가 합의하는 최대공약수인양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시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것이 말의 성찬(盛饌)으로 끝날 뿐, 실천적 차원에서 담보되기 어렵다. 시민단체, 정책담당자나 현장 교육자 모두 그런 경향이 강하다.

오히려 실제로 이들 세 가치의 선택과 조화와 연관하여 경제주의와 평등주의 간의 이념논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적 갈등이 지나치게 치열하고, 그 주장이 교조적이라는 데 있다. 경제주의자들은 격변하는 시대적 조류, 즉 세계화, 정보화, 지식사회화의 격류 속에서 국가생존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수월성(秀越性) 교육과 교육개방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평등주의자들은 교육이 부와 신분 세습의 사회적 재생산기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큰 교육기회의 평등과 대중교육의 내실화가 관건이라고 역설한다.

교육과 연관된 대부분의 주제는 곧장 이념적 쟁점으로 비화한다. 이들 쟁점에 대해 경제주의자들과 평등주의자들은 대척적 입장에서 교조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교육정책 결정자는 이러한 이념논쟁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적어도 중기(中期) 수준의 청사진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강조해야 할 것은, 위의 세 가지 가치 중 어느 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실제로 정책과정에서마저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는 본질주의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결정의 초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과 조화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세 가지 가치, 즉 본질주의, 경제주의 및 평등주의를 어떻게 조합·조화해야 할 것인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세 가지 가치의 장점을 적기(適期)에 슬기롭게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서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아 및 초등교육의 경우, 본질주의적 접근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중등교육, 즉 중학 및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평등주의와 경제주의를 조화롭게 배합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학교육에서는 경제주의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평생교육의 경우, 워낙 교육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방향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그 유형별로 세 가치가 다양하게 조합하게 될 것이나, 대체로 실용주의적 접근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근본주의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인성교육에 가장 역점을 두고 창의성의 씨앗을 뿌리면 된다고 본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 인간화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부터 인간다운 삶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동체의 준칙들, 예컨대 정직과 상호신뢰, 질서와 자제, 도움과 나눔을 내면화하고, 이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정성껏 가르쳐야 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인성교육은 언제나 자칫 허구화될 위험이 도사린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창의적, 실천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이를 바르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찍부터 열린 생각과 창의적 사고, 상상력과 실험정신,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바르게 길러, 이들이 사회에 유위한 재목으로 클 수 있는 비옥한 정신적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지식이나 학력 위주의 교육이나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일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러한 근본주의적 입장은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어려서부터 학력 위주의 교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거센 압력과 또 그를 부추기는 사교육시장의 상술과 유혹으로부터 엄청난 도전을 받는다.

본질주의적 접근을 실천하는 데 ‘방과후학교’가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교가 앞장서서 방과 후에 근본주의적 맥락에서 고안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자발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더불어 특기·적성을 조기에 발굴하고 바르게 키워 줄 수 있는 창조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사는 교사 이외에 전문직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시향 연주자, 지역 인간문화제 등)나 인접대학교 관계자(교수, 대학원생, 대학생) 등을 초빙하여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는 것이 좋다. 실효성 있는 ‘방과후학교’는 본질주의적 접근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고,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가장 교육적이고 인간화된 장소인 학교에 머물게 됨으로써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의 경우 중등교육은 대중교육의 단계에 접어든지 오래다. 따라서 모두에게 평등한 보편적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적어도 이 단계부터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경쟁력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조직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등주의와 경쟁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교육단계에서도 본질주의적 접근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초등 단계에 비해 그 비중이 줄어들 것이나, 인성의 개발과 체력의 보강 등 전인교육적 노

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정책의 근간은 경제주의의 바탕에 서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선택과 집중', '경쟁과 자율'의 기초 위에서 지식강국으로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진력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그동안 고급인력의 대량공급체제를 구축하여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지나치게 양적 팽창에 주력하여 이상비대화되었다. 이제 바야흐로 고급인력의 질적 관리가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전인교육을 향한 교육의 본질적 노력은 가능한 수준에서 함께 할 것이 요구된다.

전 생애에 걸쳐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바야흐로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키워드는 '학습하는 국민'이다. 시시각각으로 새롭고 다양하게 구조화되는 노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정을 통하여 양질의 근로능력을 장기간 유지·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고용능력(sustainable employability)'의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은 지상명령이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실태를 보면, 현재로서는 청년·중청년층, 실업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태부족하고, 개인부담비용에 의존도가 높을뿐더러, 전반적 질관리체제의 취약, 평생학습에 대한 정부제공기능의 미흡, 평생학습 경험·결과 간 연계·호환 취약,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 미흡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볼 때, 전 생애적 e-learning 학습체제의 구축은 전 국민을 '평생학습자'로 재탄생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평생학습은 대체로 실용주의적 접근이 우세하나, 이 과정에서도 가능한 수준에서 전인교육의 철학과 관점, 그리고 방법론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에 점차 강조되고 있는 인문학적 접근, 학제적 접근, 통섭주의적 접근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

최근 대안학교는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교육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대안교육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 대안교육적 접근은 대체로 1) 작은 공동체를 추구하며, 협동, 상생, 돌봄, 사랑, 나눔,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또한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참여를 표방한다. 아울러 2) 전인적 인간을 강조하고 인성교육에 역점을 둔다. 3) 자연친화적이다. 4) 일과 학습의 일체화를 추구하며, 체험학습과 노작교육을 강조한다. 5)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며, 자생력과 실험정신,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한다. 제도권 교육과 대안교육 간의 점점 찾기를 계속할 경우 우리 교육의 내용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인(2001), 창조적 자아(Creative Self: Psychology Alfred Adler), 한국전인 교육개발원.
- 넬 나딩스(2005), 교육에서의 돌봄, 따뜻한 돌봄과 배움이 가능한 작은 학교 만들기, 제5회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심포지움(2004/11/26).
- 사토 마나부(2005),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협동학습을 지지하는 교사의 동료성, 따뜻한 돌봄과 배움이 가능한 작은 학교 만들기, 제5회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심포지움(2004/11/26).
- 안병영(2005),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의 긴급제언, 신동아(2005.7).
- 안병영(2005), 21세기 평생학습사회와 대안교육, 따뜻한 돌봄과 배움이 가능한 작은 학교 만들기, 제5회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심포지움(2004/11/26).
- 안병영, 김인희(2009). 교육복지정책론, 다산출판사.

- 조한혜정(2005), 돌봄과 배움이 가능한 작은 학교 만들기, 따뜻한 돌봄과 배움이 가능한 작은 학교 만들기, 제5회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심포지움 (2004/11/26).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2010), 핀란드의 교육혁명, 살림터, 양희규(2008), 꿈꾸는 간디학교 아이들, 가야박스.
- Alfred Adler (1993), *Das Leben Gestalten: Vom Umgang mit Sorgenkindern*, Frankfurt am Main.
- Alfred Adler (1994), *Wozu Leben Wir?*, 1994, Frankfurt am Main.
- Alfred Adler (1998), *Die Technik der Individual-Psychologie 1*, 1998, Frankfurt am Main.
- Burrhus Fredric Skinner, 차재호 역(1982),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탐구당.
- Nel Noddings (2003), *Happiness and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ja T. Nasr, 강선보 외 옮김(2001), 전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 Viktor E. Frankl, 이시형 옮김(2005), 죽음의 수용소에서, 청아출판사.
- Viktor E. Frankl (1992), *Psychotherapie fuer den Alltag: Rundfunkvortraege ueber Seelenheilkunde*, 1992, Freiburg, Basel, Wien.
- Viktor E. Frankl (1972), *Psychotherapie fuer Jedermann: Rundfunkvortraege ueber Seelenheilkunde*, Freiburg.